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수험생 여러분께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제가 겪었던 공부방법과 수험 생활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나름의 주관적인 경험이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수험생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2025. 2.에 올패스를 등록하고 예비순환, 1순환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듣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듣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5월 이후이었습니다. 박문각 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강의는 제 수험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출제 포인트와 학습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학습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와 기본서와 핵심암기자료, 케이스 사례를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특히 핵심암기자료는 방대한 기본서 내용을 압축해 놓은 자료이고 양면복사하면 양도 많지 않아서, 수업과 자습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중요한 부분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 기본서를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조한 기출문제와 두문자 암기법은 민사소송법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비와 1순환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여 다 듣지 못했지만 마지막 2순환 3순환은 강의와 사례, 모의고사는 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모의고사도 응시하였습니다. 답안 업로드는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은 있었지만 막상 교수님의 채점결과를 볼때는 결과가 거의 밑바닥 수준이라 마지막까지 불안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믿고 계속 정진하였습니다. 특히 배점이 작더라도 결과만 적지 않고 요건, 효과, 근거조문, 판례 등을 반드시 한두줄이라도 언급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는 것을 모두 쓰고 판단은 채점자에게 맡기자는 심정으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덕분에 점수는 만족할 점수를 얻었습니다.

민사서류작성은 시간안배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마지막 40분을 남기고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의 형식적 기재사항과 청구 취지까지가 점수의 5할 이상이라는 생각으로 그부분이 틀리지 않게 집중하였습니다.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앞장의 형식적 기재사항과 청구취지가 정답과 상이하면 그 뒤의 청구원인은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 문제는 사건을 파악하기에 문제지가 너무 많고 쟁점을 빠르게 캐치해 나가기가 어려워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리걸마인드와 학습량에 비례하기도 하고, 과목 특성상 완벽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천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사례 유형별 케이스를 시간이 날때마다 연습하고 마지막에 다시 볼 사항들을 정리하여 포스트일을 붙여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례를 많이 접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이번 시험문제를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한 것 같아 감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은 많이 적지 못하였지만 생각 이상의 점수를 득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은 김기찬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내용이 정제되어 있고 깔끔하여 쉽게 정리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의때 판서내용을 꼼꼼히 필기했던 것이 부동산등기법을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유형별 학습법과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차 체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류는 항상 부동산등기법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도구로 항상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도식화된 그림을 기반으로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학습법이 연습으로 익숙해져 신청서 작성시에는 어려움 없이 바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반복적인 학습과 도표 작성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가 예상가능하고 무난하여 만족할 점수를 얻었습니다.

독학하는 수험생에게는 학원강의가 필수이니 반드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시험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직장을 병행하는 수험생도 효과적으로 학습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이해력입니다. 수험기간 중에는 생활속에서도 항상 학습한 것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수험서와 병행하는 생활을 하시길 권합니다.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활을 여기서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준 박문각 교수님들, 운영진께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